

2001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11월 23(금) ~ 26일(월)까지 4일간 개최

2001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이 11월 23 ~ 26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대서양홀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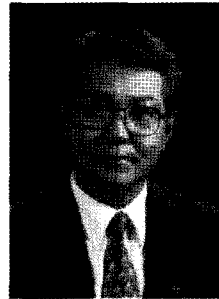
2001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축산물 등급판정소와 코엑스가 주관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브랜드 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신청 하면 된다.

우리축산물의 브랜드 파워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우리축산물 브랜드의 안전성과 우수성 집중, 브랜드 축산물 유통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2001우리축산물 브랜드전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꿀 등 브랜드 축산물과 육류가공품, 축산유통, 기자재 등이 전시된다.

전시관 구성은 소비자 정보관, 브랜드 전시관, 유통정보 전시관으로 구분돼 운영되며 사전행사로 우리 축 산 물 브 랜 드 사 이 버 전 시 관(www.kormeat.com) 방문자중 경품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브랜드전 행사기간중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축산물 교환권 추첨행사를 갖는다.

또한 행사기간 중에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축산물 요리강습회, 우리축산물 솜씨대회, 식육상품화 경진대회 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되며 △우리축산물 브랜드의 발전방향 △우리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개최된다.

(주)체리부로식품
김안규 부사장 취임



2개 도계장 및 중원농장 인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는 (주)체리부로식품(대표 김인식)이 최근 국내 육가공업계의 최고 권위자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는 김안

규(57) 한국육가공기술인협회장을 부사장으로 선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신입 김안규 부사장은 충북대 대학원 졸업후 (주)롯데햄 우유공장과 (주)팽귄 육가공사업 본부장 및 (주)미원농장 상무이사를 거쳐 지난 95년부터 최근까지 (주)하림에서 부사장에서 육가공사업을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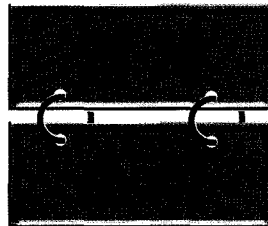
하는 등 육가공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체리부로식품의 김안규 부사장 영입에 대해 업계 내에서는 계육가공사업 확대를 위한 체리부로식품의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외관련 체리부로식품의 한관계자는 『김안규 부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본격 출시를 눈앞에둔 육가공제품의 판매망 확보 및 신제품 개발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내 육가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기연 개발, 양계용 유산균제 해외서 호평
국제특허출원 결정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에 의해 선발된 균주를 이용,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양계용 유산균제 기술



이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에 개최된 국제축산 식품학회(IAAFSC)에 참석했던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 이상진과장에 따르면 「유산균의 개발과 육계에 대한 급여효과」 발표시 소개된 양계용 유산균제에 대해 외국의 학계는 물론 관련업계까지도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제특허출원을 권유, 축산연측은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으며 일부 외국업체들에서는 공동연구까지 제안해 온 정도여서 그 관심도를 짐작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외국의 학계나 업체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국제적으로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규제가 향후 양계산업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것이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 아직 미진한 것이 그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암모니아 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료내 단백질함량을 줄이면서도 영양파란스를 줄이는 방안을 집중 연구해 왔으나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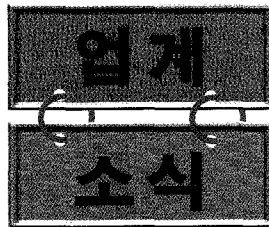
그러나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가 닭의 맹장에서 탐색된 23개의 균주 가운데 최종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4개의 균주를 선발하는데 성공, 최근 대성미 생물연구소와의 공동연구 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개발에 돌입한 양계용 유산균제는 사료섭취량은 변동없이 사료효율 증가는 물론 암모니아 가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월일자 면참조)

단백질이용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키는 분변내 질소 성분을 감소시킴으로써 암모니아 가스를 절반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품화를 통해 산란계와 육계 등 총 13회에 걸쳐 실시한 사양실험결과에서도 같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져 제품으로서의 가치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상진 과장은 「항생제가 닭에게 10배 이상 투입되도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며 「빠르면 올해안에 농가에 시판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 검토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이 유산균을 돼지에게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금학회
하계 심포지엄 개최**
-지난 10일
서울대 농생대

생명공학을 이용한 백신개발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

타났다.



「가금생명공학과 산업적 응용」을 주제로 지난 10일 개최된 한국가금학회(회장 지규만) 하계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한명국박사는 DNA나 펩타이드백신 등 생명공학

을 이용한 백신 개발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제품 출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농생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한박사는 「가금용백신의 최신개발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생독과 생균, 사독, 사균 등 기존의 백신 외에 새로운 개념의 생명공학 백신 개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백신들은 기초과학연구나 많은 투자가 전제돼야 하지만 기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 안전성이 높고 효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등 백신의 이상적인 기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박사는 그러나 백신의 개발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전개, 실험실 또는 필드연구가 많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라이선스를 획득한 제품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곧 국내업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초 연구와 과감한 투자가 선행, 이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응해야 함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Igy의 산업적 이용」에 대해 에그바이오테크 이남형 박사의 발표를 비롯해 「형질전환 닭 생산을 위한 수정란 배양기술」과 「개념시대의 도래와 가금의 새로운 유전자 탐색」 등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우리농산물 애용 기획행사 개최 지난 18일(토) 과천 한국마사회 승마경기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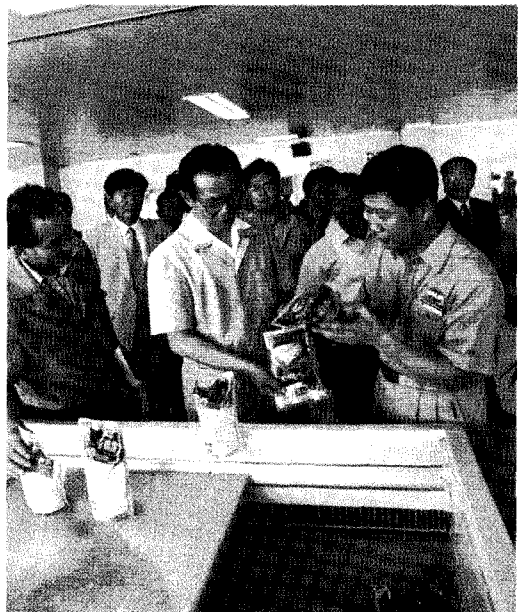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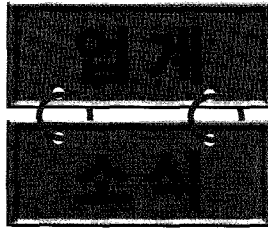
우리농산물 애용 기획행사가 지난 18일 한국마사

회 승마경기장 및 전면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칠월칠석 건우직녀의 날」과 연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젊은 연인들이 우리농산물로 만든 상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날로 정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국내 농산물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산품의 선물화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벤처농업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린 우리 농산물 애용 기획행사는 농산품을 이용한 A&V(Altair & Vega)카페테리아 운영, 우수아이디어 농산물 전시 및 판매 등 각종 전시행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승마경기장 특설무대에서 는 가수 유열씨의 진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주제의 음악회를 가졌다. C



▶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3일 (주)하림을 방문, 돼지고기·닭고기를 수출명품으로 지정하는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 좌로부터 안종운차관보, 한갑수장관, 김홍국하림사장)